

중기부-환경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 육성한다

이덕주 기자 입력 : 2020.07.19 13:25:08

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`그린뉴딜 유망기업 100` 선정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.

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, 2022년까지 100개사를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.

두 부처는 이번 공고를 통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40개사를 우선 선정할 계획으로,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참여 희망기업의 접수를 받은 후 평가를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한다.

선정기업에는 향후 3년간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0억원을 지원하며, 이를 위해 두 부처는 올해 제3차 추경으로 총 407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.

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(R&D) 지원 중심의 `그린벤처 프로그램`을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환경부는 사업화 지원 중심의 `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`을 통해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(①청정대기, ②자원순환(포스트 플라스틱 포함), ③생물, ④스마트 물, ⑤수열에너지 등 기타분야)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. 두 부처의 이번 프로그램은 그린 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`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`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이다.

[이덕주 기자]

[© 매일경제 & mk.co.kr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